

전남 교육청, '책 읽는 전남교육' 실현 "공부하는 학교 앞당긴다"

전라남도교육청, 2023 독서인문교육 활성화계획 발표 독서인문학교 운영·전담팀 신설·종합포털 구축 등 추진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부하는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독서인문학교 운영, 독서인문교육 전담팀 신설, 종합포털 구축 등 '책 읽는 전남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0일 오전 청사 중회의실에서 김대중 교육감의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2023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학교급별 독서인문교육 기반 확산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독서를 기반으로 실천적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서토론 융합프로그램 '전남독서인문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초등학교는 인물, 중학교는 세계, 고등학교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독서와 문화교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국외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독서인문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먼저, 본청 내에 독서인문교육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중이며, 권역 별 거점도서관에도 학교도서관 지원조직을 설치해 학교현장의 독서교육을 뒷받침키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독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독서인문교육 종합포털인 (가칭)'아이랑 책이랑'도 구축

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책 읽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교실에서 교사·학부모와 함께 30분 간 독서를 하는 '책으로 여는 아침'을 운영하고,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작가 책 출간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독서인문 동아리 운영으로 자발적인 독서문화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 십만독자 팟방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인문주간 및 인문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 '책 읽는 전남교육'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회견자료를 통해 △ 공부하는 학교 △ 전남미래학교 육성 △ 전남형 교육자치 △ 교직원 사기 증진 등의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2023년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라며 "독서를 통한 공부하는 학교, 공생 실천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독서는 교육의 씨앗이자 바탕이며, 공부하는 학교도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올 한 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찾아가는 이동과학버스 4D 영상 체험 프로그램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나주시 관내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과학버스 4D 영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총 650여명의 유치원생·초등학생 체험 예정

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650여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체험 예정으로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어 눈길을 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유치원생 및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반복된 일상 중 예상하지 못한 새롭고 즐거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단순 영상 시청에서 벗어나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여 상상하고 도전해

보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획 의도가 있다.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이동과학버스 4D 영상 체험활동, 로봇을 활용한 창의융합체 협활동 및 과학탐구활동을 포함한 '찾아가는 창의융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에 2023년에는 찾아가는 이동과학버스 4D 영상 체험 지원 횟수를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중앙초, 결식위기 학생 가정 식품지원



곡성읍청년회와 함께 후원

곡성중앙초등학교는 지난 10일 방학 중 결식위기 학생 11명 가정을 방문하여 식품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식품 지원에는 곡성읍청년회에서 220KG 쌀과 라면 11박스를 후원해 주어서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열정과 패기가 봉사를 더하다"라는 슬로건

을 걸고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곡성읍청년회장 정인관은 분교 졸업생으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작년에 마스크 지원에 이어 올해 쌀과 라면을 기부한 곡성읍청년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중앙초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선도학교로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지역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곡성=양해영 기자

강진 병영초, 행복·사랑·나눔 성금 모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병영면 사랑 더하기' 캠페인에 불우이웃성금 기탁

강진 병영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병영면 사랑 더하기' 캠페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한 기탁금은 학생들과 교직원 학교 텃밭에서 재배한 고구마와 감자를 판매한 금액과 병영초등학교 특색프로그램인 행복사랑나눔 장터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성금을 직접 모아 눈길을 끌었다.

문영호 교장은 "학생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나온 생산물 판매 수익금과 학부모님들의 농산물과 꽃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판매 물품 성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라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의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병영면 사랑 더하기' 기탁금은 2023년 상반기 저소득 아동 슬기로운 집콕놀이키트, 꿈을



향한 도전! 책 나눔 사업 등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특화사업비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이정선 교육감, 5·18단체 관계자와 연석회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10일 교육감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석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조진태 상임이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홍순백 상임부회장,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정성국 국장, 시교육청 최영순 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며, 5·18관련 단체 참석자들과 함께 5·18 세계화를 포함한 교육



활성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